

사회적지지가 베이비부머의 창업기회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업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상수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박사과정)*

임왕규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교수)**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 (1955-1963년생)를 대상으로 창업자기효능감을 매개 변수로 하여 사회적지지가 창업기회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창업정책과 교육은 청년창업사관학교 등의 제도를 통해 대부분 대학생 및 청장년층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고, 또 이들을 대상으로 사회적지지가 제도적지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 베이비부머에 대한 연구는 복지부문에 치우치고 있고 실제로 이들은 은퇴 후 생계를 위해 치밀한 준비없이 생계형 창업에 뛰어들고 있으나, 이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지지가 기회형 창업 추진에 필요한 창업기회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지지가 베이비부머의 창업기회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주로 서울시와 경기도 일원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들로부터 수집한 설문지 387부를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사회적지지가 창업기회역량의 기회인식과 기회평가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지지가 창업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정서적, 물질적 지지만 자신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정서적지지와 평가적지지만 자기조절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정서적지지와 물질적지지만이 과업도전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창업자기효능감 중 자기조절효능감과 과업도전감 만이 창업기회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및 과업도전감 모두가 기회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적지지가 창업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창업기회역량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부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주제어: 베이비부머, 사회적지지, 창업기회역량, 창업자기효능감

1. 서론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과 보건환경 개선 및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국민의 평균수명이 연장된 반면 합계출산율(15-49세 가입여성 한명이 평생 낳을 평균 자녀수)은 1970년 4.71명에서 2005년 1.22명, 2016년 1.17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의 급격한 저하로 전인구 대비 만 65세 이상의 노인의 비중이 7%를 넘는 고령화 사회를 2000년에 맞은 이후 불과 17년만인 2017년 5월에 노인의 비중이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들어섰다.

이 고령화 속도는 2015년에 통계청이 장래인구추계에서 예측했던 2018년 보다 1년이나 빨랐고 프랑스 115년(1864→1979), 미국 73년(1942→2015), 독일 40년(1932→1972) 및 그동안 세계에서 가장 빨랐던 일본의 24년(1970→1994)보다도 빠를 뿐 아니라 불과 7-8년 후면 노인비중이 20%가 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어 가히 실버쇼크라 부를 만하다(백광엽, 한국경제신문, 2017. 4. 7).

이러한 우리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속도의 원인 세대로 지목되고 있는 1955년-1963년 사이에 출생한 베이비부머 중 1955년생이 55세가 되는 2010년부터 이들의 정년퇴직이 본격화되었고 앞으로 수년간에 걸쳐 베이비부머 세대 모두가 현업에서 퇴직할 것이므로 장차 이들의 부양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대하는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더불어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3,763만 명을 정점으로 올해부터 줄어들기 시작하여 이는 경제성장률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통계청, 2015)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보다 일찍 고령사회(1994년)와 초고령사회(2006년)로 진입한 일본은 “부양에서 자립으로”라는 슬로건으로 내세우면서 노년층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국가 복지시스템에서 “일하는 복지”로의 정책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지영(2011)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집단 은퇴에 따른 사회현상의 변화는 세대 간의 사회계층화 및 사회갈등의 중심축으로 기

* 제1저자,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박사과정, elcoma@naver.com

** 교신저자,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교수, wklm@hoseo.edu

· 투고일: 2017-08-31 · 수정일: · 게재확정일: 2017-10-07

능하는 등의 경제, 정치 및 문화적 불평등에 중요한 함의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대현상에 대한 우리의 연구수준은 아직까지 일천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집단은퇴에 따른 경제성장 동력의 저하를 억제하면서 노년층의 사회안전망 확충의 일환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현상으로 창업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사회적인 환경에서 청장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원이나 정책관심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베이비붐 세대만을 대상으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많이 연구된 제도적지원부문을 제외하고 사회적지지만을 독립변수로 연구하고자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4년 ‘기업가정신 보고서’에서 창업의 유형을 먹고살기 위한 생계형 창업, 경쟁력 있는 기회를 기반으로 창업을 하는 기회(추구)형 창업 및 가족이 소유·경영하는 가족기업형 창업으로 나누고 이를 OECD에 가입한 34개의 국가별로 비교하였는데, 한국은 이 중 생계형 창업 비중이 63%로 인도(66%)에 이어 2위를 차지했고, 기회형 창업 비중은 21%에 불과해 전체 OECD 가입국 중 최하위인 34위를 차지했다. 덴마크(76%) 네덜란드(67%) 핀란드(66%) 등 기회형 창업 비중이 높은 국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창업기회역량을 살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방식으로 창업하기보다는 먹고살기에 급급해 치킨집이나 프랜차이즈 등 자영업을 영위하는 이들이 압도적이라는 얘기다(심성미, 2014).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5060 세대를 ‘신중년’이라고 명명하면서 발표한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에서 신중년이 현업 은퇴 후 실패 확률이 높은 과밀 생계형 창업을 지양하도록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여 신중년의 주된 일자리 기술 및 경험과 청년의 ICT 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세대융합형 창업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 2017.8.8).

베이비붐 세대는 현업 은퇴 후에도 현실적으로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밖에 없지만 한정된 사회 일자리를 두고 청장년층과의 경쟁에서 낮은 질의 일자리로 밀려날 수밖에 없고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는 기회형 창업보다는 주로 생계형 창업을 생각해야하는 불가피한 잠재창업자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이들에 대한 사회적지지가 실제로 창업을 추진하기 전에 기회형 창업을 위한 창업기회역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 다음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창업자기효능감이 매개변수로서의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후 현업에서의 경험이나 기술을 살려 창업기회를 개발하고 추진하는 기회형 창업으로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검증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2.1 베이비붐 세대

2.1.1 베이비붐 세대의 정의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정의는 합계출산율이 3.0 이상인 대규모 연령대가 연속적으로 일정기간 유지된 인구 코호트를 의미한다(진주영, 2017). 우리나라에서는 연구에 따라 1955년-1974년 20년간을 통 털어 베이비붐 세대로 보는 견해도 있고, 또 이를 1차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와 2차 베이비붐 세대(1968년-1974년)를 구분하기도 하는 등(최은영, 2015) 여러 견해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베이비붐 세대 관련 선행연구에서 보편적으로 적용한 1955년-1963년 사이의 출생자로 규정한다.

2.1.2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선행연구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선행연구는 전체 인구의 14.6%인 716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구 코호트를 대상으로 이들이 연쇄적으로 은퇴를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중심으로 대부분 진행되었다. 김용하(2011)는 향후 지속적인 저출산 현상 속에 급격한 노령인구의 증가로 노년 부양비와 연금 부양비 모두 급증하게 되어 사회적으로 이들에 대한 부양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다고 예측하였다. 또 방하남(2012)은 평균수명 연장으로 정년퇴직 후 길어진 여생동안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의 문제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가족,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베이비붐 세대의 환경특성의 주요 하위 변인인 은퇴준비 특성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김시월·조향숙(2013)은 취업여부에 따른 재정상태가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에 주요한 변수임을 밝혔고, 진주영(2016)은 은퇴준비특성이 은퇴 후 경제활동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산상태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경제활동여건이 정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한 것을 볼 때 대부분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이후에도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원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2.2 사회적지지

2.2.1 사회적지지에 대한 정의

사회적지지(Social Support)란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지지망, 사회적 지지체계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주로 심리학, 사회학에서 시작한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개인이 타인이나 대상으로부터 얻는 긍정적 자원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용어로서, 인정, 존중, 사랑 등과 같은 상징적이고 물리적 도움이 포함되는 개념이다. 즉 사회적 관계에서 형성된 애정, 호의, 소속감을 비롯해 실질적 감정요소를 가족, 친구, 이웃, 기타 사람(기관 및 정부)들을 통해 제공받아 지각하고 나누게 되는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다수의 선행연구는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지원으로 작용하는 일련의 도움활동을 ‘사회적지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론을 정리하고 있다(박성희, 2016).

House(1981)는 사회적지지를 개인이 대인관계로부터 제공받는 객관적 사회적지지와 개인이 필요할 때 주위 지인들로부터

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말하는 지각된 사회적지지로 구분하고 있다.

2.2.2 사회적지지에 대한 선행연구

1970년대 중반 예방심리학에서 연구가 확산된 사회적지지는 개인이 가족, 친구, 선생님 등 대인관계를 통해서 타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자원을 통칭하는데, 광의의 개념으로는 타인으로부터 제공되는 모든 자원을 의미한다(Cohen & Hoberman, 1983). 대인관계 관점에서 접근한 Cobb(1976)은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믿고 상호 의사소통과 책임을 갖는 집단의 구성원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것 등을 사회적 지지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다. Kaplan, et al.(1977)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사랑하고, 돌봐주며 자신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사람이 있거나 그로부터 도움을 받을 가능성으로 사회적지지를 정의하였다(진주영, 2016).

Betz(1989)는 사회적 상호관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긍정적인 자원을 통칭하면서 진로와 관련해서는 개인이 행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자원을 도와주는 것 의미한다고 기술하였다. Dong & Simon(2010)은 개인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위한 타인의 도움이나 지원, 격려 등의 사회적 상호관계라고 정의하였다. House(1981)는 사회적 지지를 정서적인 관심, 도구적 도움, 칭찬, 정보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이 포함된 대인관계적인 행위로 정의하였고 이 외에 Schulz & Schwarzer(2004)는 사회적 지지를 타인으로부터 문제 해결과 관련한 조언이나 다양한 정보, 정서적인 안정 등을 제공받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오승국(2015)은 사회적지지가 구직효능감을 경유하여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유의미한 영향은 미치지 않지만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기술하고, 김재호(2013)는 청년예비창업가에게 사회적지지는 창업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입증하였다. 박성희(2016)는 사회적지지는 소상공인의 성격특성과 사회적 자본확보 사이를 조절한다는 것을 입증하였고, 임교순(2016)은 사회적지지는 창업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고 초기 창업자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전영달·허철무(2015)는 컨설팅트에 대한 사회적지지가 컨설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진주영(2016)은 베이비붐 세대의 부모/자녀부양 및 취미/친목활동과 은퇴 후 경제활동 지향성 간에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입증하였다.

2.3 기회역량

2.3.1 기회역량에 대한 정의

일반적으로 역량(Competency)이란 특정 행동 또는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가치, 행동 등을 말한다. 역량은 특질과 인지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지식, 행동, 태도, 기술을 아우른다는 점에서, 또한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특

질과 인지 요인을 초월한다(Man et al., 2002). 지금까지 밝혀진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창업가의 특성, 성향, 가치, 정서적 상태, 인지유형 등이 있지만 성공인적 창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창업역량이 무엇인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Morris et al., 2013).

Man et al.(2002)은 단계별 경쟁력 확인을 위해 프로세스 관점에서 창업 역량을 연구하여 기회인식 및 개발(기회역량), 관계 형성(관계역량), 개념화(구상역량), 조직화(조직역량), 전략화(전략역량), 개인적인 헌신(헌신역량) 등 총 여섯 가지의 창업역량을 제시하였고, Morris et al.(2013)은 창업 행동에 필요한 13가지의 창업역량을 제안했는데, 여기에는 기회인식, 기회평가, 위기관리 및 완화, 강력한 비전 전달, 끈기와 인내, 창의적 문제 해결 및 창의성, 자원 레버리징, 게릴라 기술, 가치 창조, 집중 및 적응, 회복력, 자기효능감,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등을 포함한다(최민정, 2016). 이 두 가지 창업역량에서 가장 유사한 점은 기회와 관련된 항목으로 Morris et al.(2013)이 제시한 기회인식과 기회평가 역량은 Man et al.(2002)이 제시한 기회역량을 델파이 기법을 통해 세부적으로 분류한 것으로 기회를 인식, 개발하는 과정이 창업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창업기회역량을 Morris et al.(2013)이 제시한 기회인식과 기회평가를 대상으로 한다.

2.3.2 기회역량에 대한 선행연구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생계형창업 비중은 66%인 인도에 이어 2위(63%)인 최상위로 나온 반면, 기회(추구)형 창업 비중은 21%에 불과해 34위로 최하위인 사실에서 보듯이(심성미, 2014), 기회(추구)형 창업의 확산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2016년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생계형 창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기회형 창업지원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로 한 것은 창업기회역량의 중요성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창업기회역량 중 기회인식은 창업과정의 첫 번째 과정으로 창업행동의 핵심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기회란 창의적으로 자원을 조합하여 좀 더 우월한 가치를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가능성을 의미한다(Kirzner, 1973). 처음 인식된 기회는 단순한 컨셉에 불과하지만 평가과정을 포함한 지속인 개발과정을 통해 더 발전된 양상으로 변화한다. 기회가 인식되면 기회평가도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처음에는 특정한 형식, 절차나 방법이 없이 자유롭게 조사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통해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 때 기회인식과 평가는 단 한 차례의 과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환적이고 반복적으로 최선의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되풀이한다(Ardichvili, et al., 2003).

최민정(2016)은 창업자기효능감은 기회인식과 기회역량 모두에 양(+)의 영향을 미치지만, 현재의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교

육은 기회인식 및 기회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와 기회형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창업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강제학(2016)도 ‘창업기회인식’을 매개효과로 하여 셀프리더십과 창업효능감 및 창업의 시간과 기업가정신과 창업효능감 및 창업의 시간을 검증한 결과 간접효과가 직접효과 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대학 내 창업교육에서 창업기회인식의 교육 강화를 주장하였다.

2.4 창업자기효능감

2.4.1 창업자기효능감에 대한 정의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1977년 Bandura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는데, Bandura(1977)는 자기효능감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라고 정의하였고(강재학, 2016), 이후 1986년에는 ‘주어진 상황적 요구나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대되는 일련의 행동들을 계획하고 수행할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확신’이라고 하고, 1993년 연구에서는 ‘주어진 상황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구되는 동기, 인지자원, 행동과정을 최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믿음’이라고 정의하였다. 자기효능감의 정의가 장기간에 걸쳐 일부 수정되기는 했지만 그 의미를 살펴볼 때 자기효능감이 특정 과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주체의 자신감과 믿음이라는 데는 변함이 없어 보인다(안승권, 2016).

여기에서 창업자기효능감(Entrepreneurial Self-Efficacy)은 일반적으로 창업에 대한 창업자의 자신감을 포괄하는 의미인데, 구체적으로 자기효능감을 창업관련 연구에 적용한 개념으로 창업자가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다는 창업능력에 대한 확신이라고 볼 수 있다.

2.4.2 창업자기효능감에 대한 선행연구

Bandura(1977)는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을 사회인지모형에 기초하여 1977년부터 몇 차례의 연구를 거치면서 수정 보완하였는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정된 능력이 아닌, ‘주어진 상황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구되는 동기, 인지자원, 행동과정을 최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믿음’이라고 정의하였다.

Bird(1988)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창업의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가 자기효능감이라고 주장하였다.

Schunk(1991)는 "주어진 문제의 해결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서술하였다. Krueger & Dickson(1994)은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찾아 활용할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강하므로, 향후 창업의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강재학·하규수(2015)는 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기업가정신이 창업효능감과 창업의지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또한 창업기회인식이 창업효능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였고, 안승권(2016)은 대학교육 지원과 제도적지원이 창업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자기효능감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입증하였다. 채연희(2016)는 고용가능성은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자기효능감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였고, 박성호(2017)는 창업자기효능감(사업운용자신감, 자금조달자신감)은 기업가정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입증하였고, 안태욱(2017)은 대학창업교육에서 창업가정신과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입증하였다.

2.5 사회적지지와 창업자기효능감

이경재(2015)는 베이비부머에 대한 사회적지지가 자기효능감의 자기조절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지지의 하위변인인 정보정서적 지지와 물질평가적지지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다. 또한 사회적 지지가 자기효능감의 자신감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인인 정보정서적 지지는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낸 반면, 물질평가적 지지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가 자기효능감의 과업도전감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운(2017)은 서비스직원에 대한 사회적지지가 자기효능감을 포함하는 긍정심리자본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 창업자기효능감과 기회역량

Krueger & Dickson(1994)은 자신감이 높은 사람, 즉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기회인식이 증가한다고 하였고, Ardichvili et al.(2003)은 개인의 낙관적인 특성과 관계있는 자기효능감은 기회인식과 기회평가를 포함하는 기회개발 과정과 정(+)의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Ozgen & Baron(2007)은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보다 기회인식에 더 적극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최민정(2016)은 소상공인 대상 창업교육연구에서 창업자기효능감은 기회인식과 기회평가에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입증하였고, 정신박(2013)은 창업자기효능감이 사회적지지와 창업의도 사이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강재학·하규수(2015)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기회인식이 매개변수로 기업가정신과 창업효능감 사이에서 창업효능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입증했다.

이처럼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보듯이 자기효능감은 기회인식과 기회평가를 포함하는 기회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II. 연구 설계

3.1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매개변수가 다중인 병렬다중매개모형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즉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총효과,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 매개변수가 통제된 상황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인 직접효과,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를 경유하여 종속변수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H1: 사회적지지는 기회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1: 정서적지지는 기회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2: 물질적지지는 기회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3: 평가적지지는 기회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H2: 사회적지지는 기회평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1: 정서적지지는 기회평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2: 물질적지지는 기회평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3: 평가적지지는 기회평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H3: 사회적지지는 자신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1: 정서적지지는 자신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2: 물질적지지는 자신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3: 평가적지지는 자신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H4: 사회적지지는 자기조절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4-1: 정서적지지는 자기조절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4-2: 물질적지지는 자기조절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4-3: 평가적지지는 자기조절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H5: 사회적지지는 과업도전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5-1: 정서적지지는 과업도전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5-2: 물질적지지는 과업도전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5-3: 평가적지지는 과업도전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H6: 창업자기효능감은 사회적지지와 독립적으로 기회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6-1: 자신감은 사회적지지와 독립적으로 기회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6-2: 자기조절효능감은 사회적지지와 독립적으로 기회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6-3: 과업도전감은 사회적지지와 독립적으로 기회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H7: 창업자기효능감은 사회적지지와 독립적으로 기회 평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7-1: 자신감은 사회적지지와 독립적으로 기회평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7-2: 자기조절효능감은 사회적지지와 독립적으로 기회평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7-3: 과업도전감은 사회적지지와 독립적으로 기회평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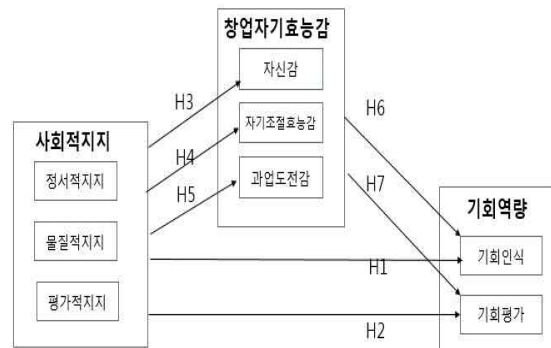
가설 H8. 정서적지지가 창업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창업기회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H9. 물질적지지가 창업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창업기회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H10. 평가적지지가 창업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창업기회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있을 것이다.

3.2 연구모형

사회적지지(정서적지지, 물질적지지, 평가적지지)를 독립변수로 기회역량(기회인식, 기회평가)을 종속변수로 창업자기효능감(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업도전감)을 매개변수로 하는 병렬다중매개모형을 기반으로 사회적지지가 창업기회역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창업자기효능감이 사회적지지와 창업기회역량과의 관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3.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주로 서울시와 경기도 일원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1955년생-1963년생)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조사 방법은 Google Docs를 이용하여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조사를 분석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들을 수정·보완한 후 본 조사에 사용될 최종 질문지를 확정하였다.

설문조사는 60일간(2017. 05. 01.~2017. 06. 30) 실시하였다. 총 450부를 배부하여 수집된 자료는 총 415부로 집계되었으며 이중 결측값이 있거나 불성실한 응답 28부를 제외한 387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Win Ver.22.0와 PROCESS macro v2.16을 이용하였다. SPSS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의 배경변수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측정도구의 정확성을 파악하기 위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변수의 일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한 신뢰도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사회적지지가 창업자 기호능감을 경유하여 기회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PROCESS macro의 병렬다중매개모형인 Model4를 이용하여 추정한 간접효과, 직접효과, 총효과를 검정하였다. 간접효과 유의성은 Bootstrap 신뢰구간 검정을 이용하였고 경로 간 특정 간접효과 차이의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3.4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도구

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가설을 구성하고 있는 각 변수들의 주요 개념이 추상적일 경우 이를 측정이 가능하게 그 내용이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래 각 변수들의 모든 항목의 문항들을 Likert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4.1 사회적지지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사회적지지는 House(1981)의 일반인 대상의 사회적지지 항목 즉, 정서적지지, 물질적지지, 평가적지지 및 정보적지지를 참고하여 Wei(2009)가 제시한 척도와 임교순(2016)이 사용한 문항을 사용하면서 이중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못한 정보적지지를 제외한 3항목을 최종 적용했다. 정서적지지는 내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누군가는 나에게 건강과 행복에 대한 걱정, 어려움에 대한 도움, 지칠 때 도움 및 좌절할 때 위로지지의 4문항을 포함한다.

물질적지지는 창업 시 내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살펴줌, 어려움에 대한 경제적 도움 및 어려움 직면에 시간적, 재능기부 제공의 3문항을 포함한다.

평가적지지는 창업 시 내 사업에 기대치를 평가, 바른 방향

으로 진행하는지 평가, 문제해결에 객관적인 평가 및 나의 행동이 사업적 원칙에 맞는지 평가의 4문항을 포함한다.

3.4.2 기회역량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중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꼭 필요한 창업역량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규명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다. Man et al.(2002)은 프로세스 관점에서 창업역량을 비슷한 항목별로 분류하여 기회인식 및 개발, 관계형성, 개념화, 조직화, 전략구성, 개인적 헌신 등 여섯 가지의 창업역량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Man et al.(2002)이 제시한 기회역량을 텔파이 기법으로 기회인식과 기회평가 2항목으로 세분화시킨 Morris et al.(2013)과 최민정(2016)이 연구에서 사용한 항목을 사용했으며 구성변수의 문항도 그대로 사용하면서 기회인식 10문항, 기회평가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기회인식은 새 사업의 정보수집을 위해 타인과 상호 작용여부, 새 사업 아이디어에 주의집중, 뉴스, 잡지 및 간행물을 정보수집 창구활용, 인터넷 검색, 정보탐색 노력, 활발한 정보탐색, 정보 간 연결고리, 정보 간 연관성 탐구, 연결고리 만들기 및 이중 업종 연관성 찾기를 포함한다.

기회평가는 사업기회 직감력, 사업수익성 구분능력, 수익성 사업기회 감지능력, 고부가가치사업 선별능력 및 좋은 사업기회 선택능력의 문항을 포함한다.

3.4.3 창업자기효능감

일반적으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추구하지만 반면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위험과 도전적인 상황을 피하려 하고 가능한 쉽고 편한 과업을 선택하려한다(Bandura, 1977).

본 연구의 매개변수인 창업자기효능감은 Bandura(1977)와 안태욱(2017)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참조하였고, 연구목적에 맞게 세 가지 하위변수인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및 과업도전감의 3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자신감은 부담스런 상황에서의 우울감 여부, 문제발생 시 불안감, 위험한 상황 대처능력, 스트레스 여부 및 당황스러움의 5문항을 포함한다.

자기조절효능감은 어려운 상황 극복능력, 계획업무진행, 업무방향수정능력, 정보활용능력 및 어려움 조율능력의 5문항을 포함한다.

과업도전감은 어려운 과업 선호, 도전적인 일 선택, 실수 후에도 도전적인 일 선호, 도전에 흥미 및 어려운 일 극복시도의 5문항을 포함한다.

3.5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 387명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학력, 전공, 결혼 여부, 직업,

직장경력, 창업경력, 주택소유 여부, 평균 월 수입액 등의 변수로 구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성별 분포에서는 남자가 89.7%(347명)로 여자10.3%(40명)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1955-1957년생이 71.3%(276명), 1958-1960년생이 8.8%(34명), 1961-1963년생이 19.9%(77명)로 분포되어 있고 그중 1955-1957년생이 가장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이하가 2.8%(11명), 전문대 졸업 이하가 1%(4명), 대졸이하가 57.9%(224명), 대학원 이상이 38.2%(148명)의 분포로 나타나 대졸 이상이 96%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베이비부머의 특징 중 하나인 고학력자가 주종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은 이공 계열이 50.9%(197명), 인문사회 계열이 40.1%(155명), 예체능 계열이 6.2%(24명), 기타(2.8%(1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는 기혼 99%(383명), 미혼 1.0%(4명)으로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기혼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자영업 22.5%(87명), 사무직 23.5%(91명), 판매서비스 5.7%(22명), 기술전문직 22.7%(87명), 기타 25.6%(99명)의 형태로 분포하고 있다. 직장경력 보유는 96.9%(375명) 미 보유는 3.1%(12명)로 나타났고 창업경력 보유는 44.2%(171명), 미 보유는 55.8%(216명), 주택소유는 98.3%(361명), 미 소유는 6.7%(26명)로 나타났다.

가구 월평균 소득은 600만원 이상이 37.2%(144명), 4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인 28.2%(109명), 2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인 26.4%(102명), 200만원 미만인 8.3%(32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N(%)
성별	남성	347(89.7)
	여성	40(10.3)
연령	1955 - 1957	276(71.3)
	1958 - 1960	34(8.8)
	1961 - 1963	77(19.9)
학력	고졸	11(2.8)
	전문대졸	4(1.0)
	대학교	224(57.9)
	대학원	148(38.2)
전공	이공계열	197(50.9)
	인문·사회계열	155(40.1)
	예·체능계열	24(6.2)
	기타	11(2.8)
결혼여부	기혼	383(99.0)
	미혼	4(1.0)
직업	자영업	87(22.5)
	사무직	91(23.5)
	판매서비스	22(5.7)
	생산직	0(0.0)
	기술전문직	88(22.7)

	기타	99(25.6)
직장경력	있음	375(96.9)
	없음	12(3.1)
창업경력	있음	171(44.2)
	없음	216(55.8)
주택소유여부	있음	361(93.3)
	없음	26(6.7)
월평균소득	200만원 미만	32(8.3)
	200 - 400만원 미만	102(26.4)
	400 - 600만원 미만	109(28.2)
	600만원 이상	144(37.2)

3.6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가 연구하고자하는 개념을 적절하게 측정 하였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분석하였다.

요인분석과 관련하여 요인추출방법으로 카이저규칙(Kaiser Rule)을 사용한 요인수 결정방법은 고유값이 1.0 이상인 요인들의 수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또한 주성분 요인분석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도 요인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성분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측정하려는 변수들의 구성요인을 추출하였고, Varimax직각회전방식을 활용하여 요인의 구조를 단순화시켜 변수에 대한 해석을 쉽게 하도록하였다.

요인추출방법은 고유치가 1이상이고 요인적재량은 0.5이상을 충족하여야 하고, 공통성은 0.5를 충족시키는 기준을 삼았다. 또한 Kaiser-Meyer-Olkin(KMO)검정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는지 검증해보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든 척도의 KMO 값이 0.9이상(0.905)이 나와 매우 양호하게 나타남으로써 요인분석에 필요한 변수들의 선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와 함께, Bartlett-구형성 검정에서 $P=0.000<0.05$ 으로 나타나 선정된 변수들로 행하는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하다고 본다. 척도의 타당도 검증을 위한 요인분석 결과는 <표 2>와 같으며, 아이겐 값(고유치)이 1보다 큰 요인이 8개 추출되었고, 요인모델의 총 설명변량은 70.148 %로 나타났고 이를 가설검증에 사용하였다. 신뢰도 검증은 측정도구의 측정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내적일관성법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Cronbach's α 를 사용하였다. Cronbach's α 계수의 값은 $0 \leq \alpha \leq 1$ 의 값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Cronbach's α 계수의 값이 0.6이상이면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Table 2>에서와 같이 모든 변수의 Cronbach's Alpha계수가 0.7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높기 나타났고 볼 수 있다.

<표 2>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Factor							
	기회인식	과업도전감	기회평가	평가적지지	정서적지지	자신감	물리적지지	자기조절효능감
기회인식 5	.827	.107	.126	.138	.155	.068	-.030	.142
기회인식 6	.803	.122	.187	.064	.150	.087	.056	.138
기회인식 7	.713	.182	.260	.075	.007	.050	.200	.161
기회인식 4	.712	.082	-.020	.028	.203	.050	-.208	-.030
기회인식 8	.707	.215	.341	.089	.003	.093	.117	.165
기회인식 10	.649	.184	.415	.072	-.087	.093	.212	.122
기회인식 9	.579	.127	.395	.141	.000	.101	.184	.182
과업도전감 3	.096	.876	.166	.051	.014	.135	.109	.097
과업도전감 2	.172	.854	.107	.038	.108	.109	.076	.147
과업도전감 4	.131	.850	.188	.039	.063	.082	.066	.072
과업도전감 5	.149	.778	.204	-.015	.031	.175	.025	.107
과업도전감 1	.278	.689	.110	.060	.093	.177	.036	.269
기회평가 3	.285	.139	.762	.108	.097	.148	.124	.122
기회평가 2	.286	.210	.754	.127	.007	.076	.140	.034
기회평가 4	.254	.166	.751	.080	.124	.113	.132	.058
기회평가 1	.118	.162	.716	.084	.098	.103	-.056	.104
기회평가 5	.118	.110	.638	.127	.305	.158	-.039	.120
평가적지지 2	.105	-.012	.104	.870	.189	.056	.066	.041
평가적지지 3	.107	.030	.130	.850	.153	.048	.173	.076
평가적지지 4	.080	.021	.077	.847	.154	.056	.147	.098
정서적지지 1	.104	.101	.132	.821	.167	.032	.090	.029
정서적지지 2	.114	.038	.129	.168	.802	.063	.213	.086
정서적지지 4	.077	.031	.104	.216	.794	.084	.198	.140
정서적지지 1	.090	.067	.064	.146	.792	.055	.071	.073
정서적지지 3	.118	.133	.194	.196	.751	.110	.236	.155
자신감 2	.044	.190	.064	.048	.113	.792	.082	.047
자신감 4	.142	.020	.146	-.056	-.043	.775	.170	.050
자신감 5	.045	.114	.140	.082	.018	.729	.144	.191
자신감 1	.036	.116	.023	.073	.168	.698	-.094	-.012
자신감 3	.139	.215	.251	.069	.032	.542	.079	.303
물리적지지 2	.057	.124	.072	.161	.233	.137	.821	.030
물리적지지 1	.059	.065	.112	.094	.179	.087	.818	-.023
물리적지지 3	.080	.088	.044	.296	.280	.106	.707	.109
자기조절효능감 2	.152	.062	.067	-.009	.101	.021	.089	.742
자기조절효능감 4	.377	.180	.010	.093	.057	.015	-.029	.667
자기조절효능감 5	.063	.182	.130	.119	.186	.310	.050	.645
자기조절효능감 3	.070	.215	.218	.096	.119	.169	-.029	.643
고유값	4.322	3.880	3.642	3.312	3.094	2.958	2.395	2.352
분산의 %	11.682	10.486	9.842	8.951	8.361	7.995	6.474	6.358
누적율(%)	11.682	22.167	32.010	40.961	49.322	57.316	63.790	70.148
신뢰도	0.902	0.920	0.874	0.911	0.889	0.809	0.847	0.742

KMO 측도=0.905 Bartlett 단위행렬 검정 $\chi^2=9209.351$, 자유도=666, 유의확률=0.000

IV. 분석 결과

4.1 상관관계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법이 상관관계 분석이다. 상관계수를 통해서 변수들 간의 선형관계 정도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상관계수의 범위는 -1.0과 1.0 사이의 범위이다. 일반적으로 $\pm 0.81 \sim \pm 1.0$ 범위이면 상관관계가 매우 크고 $\pm 0.61 \sim \pm 0.80$ 이면 크기가 강하고 $\pm 0.41 \sim \pm 0.60$ 이면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고 $\pm 0.21 \sim \pm 0.40$ 이면 상관관계가 약하고 $\pm 0.00 \sim \pm 0.20$ 이면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pm 0.81 \sim \pm 1.0$ 범위이면 다중공선성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는데 $\pm 0.81 \sim \pm 1.0$ 범위에 속하는 상관계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상관관계

	정서적지지	물리적지지	평가적지지	자신감	효능감	과업도전	기회인식	기회평가
정서적지지	1							
물리적지지	0.48***	1						
평가적지지	0.445***	0.396***	1					
자신감	0.258***	0.279***	0.179***	1				
자기조절효능감	0.343***	0.211***	0.244***	0.374***	1			
과업도전감	0.243***	0.243***	0.162	0.386	0.441	1		
기회인식	0.308***	0.251***	0.29***	0.305***	0.456***	0.45***	1	
기회평가	0.357***	0.3***	0.323***	0.377***	0.391***	0.45***	0.595***	1

* $P < .05$, ** $P < .01$, *** $P < .001$

4.2 가설 검증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Andrew F. Hayes의 PROCESS Macro를 이용하여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포함한 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적지지가 창업기회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하기 위해 사회적지지(정서적지지, 물질적지지, 평가지지)를 독립변수로 창업기회역량(기회인식, 기회평가)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적지지를 독립변수로 기회인식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식과 기회평가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식에 각각 성별, 연령, 학력, 전공, 결혼 여부, 직업, 직장경력, 창업경력, 주택소유 여부, 평균 월 수입액의 인구통계학적 변수 중 평균비교 분석을 통해 유의적으로 나타난 성별, 학력, 전공, 직장 경력, 창업 경험 등을더미변수로 변환하여 이들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두 회귀식에서 성별만이 공통적으로 유의적으로 나타나 각 모형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성별만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는 독립성의 가정이 존재한다. 자기상관을 측정하기 위해 Durbin-Watson지수를 이용하여 Durbin-Watson 검정을 하였다. 표본 수가 큰 경우 Durbin-Watson 지수가 $1.8 < d < 2.2$ 이면 자기상관 없이 독립적이라고 할 수 있다. $d=1.847$ 과 $d=1.903$ 로 나타나 자기상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독립변수 간의 관계인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VIF)를 확인한 결과 10보다 작으므로(1.444 이하)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2.1 사회적지지가 창업기회역량에 미치는 영향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정을 위하여 10,000회 반복의 Bootstrap 표본들에 관한 편의수정 95% Bootstrap 신뢰구간을 사용하였다. 이 분석에서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간접효과가 유의적이라고 결론 내린다. 또한 특정 간접효과 간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 신뢰구간을 이용하여 특정간접효과들의 대응별 비교를 실시하였다.

사회적지지가 창업기회인식에 미치는 영향(총효과)은 <표 4>에서와 같이 유의적으로 나타났다(정서적지지; $B=.202, p=.001$), (물질적지지; $B=.093, p=.043$), (평가적지지; $B=.164, p=.002$).

사회적지지는 창업기회인식의 총 분산을 17.2% 설명하고 있다($F=19.84, R^2=.172$). 따라서 가설 H1-1, H1-2, H1-3은 채택되었다.

사회적지지가 창업기회평가에 미치는 영향(총효과)은 <표 4>에서와 같이 유의적으로 나타났다(정서적지지; $B=.233, p=.000$), (물질적지지; $B=.116, p=.010$), (평가적지지; $B=.172, p=.001$). 사회적지지는 창업기회평가의 총 분산을 20.0% 설명하고 있다($F=23.872, R^2=.200$). 따라서 가설 H2-1, H2-2, H2-3은 채택되었다.

<표 4> 창업기회역량에 대한 사회적지지의 영향

	기회인식		기회평가	
	B	t	B	t
(상수)	1.126	6.972***	1.568	5.096***
D.sex.M	.340	4.386***	.340	3.615***
정서적지지	.202	3.489**	.233	4.084***
물질적지지	.093	2.032*	.116	2.598*
평가적지지	.164	3.507**	.172	3.262**
R ²	.172		.200	
F	19.840***		23.872***	

* $p<.05$, ** $p<.01$, *** $p<.001$

4.2.2 사회적지지가 창업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지(정서적지지, 물질적지지, 평가적지지)를 독립변수로 창업자기효능감(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업도전감)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에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자신감에 사회적지지가 미치는 영향은 정서적지지($B=.170, p=.007$), 물질적지지($B=.183, p=.000$)만이 자신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H3.1과 가설 H3.2는 채택되고 H3.3은 기각되었다. 사회적지지는 자신감의 총 분산을 12.6% 설명하고 있다($F=13.750, R^2=.126$). 자기효능감에 대한 사회적지지의 영향력은 정서적지지($B=.246, p=.007$), 평가적지지($B=.086, p=.061$)으로 나타나 평가적지지가 신뢰도 95%에서는 비유의적이거나 90%의 신뢰도 수준에서는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H4.1과 H4.3(90% 신뢰도)은 채택되고 가설 H4.2는 기각되었다. 사회적지지는 자신감의 총 분산을 14.8% 설명하고 있다($F=16.648, R^2=.148$). 사회적지지가 과업도전감에 미치는 영향은 정서적지지($B=.197, p=.006$), 물질적지지($B=.168, p=.003$)만이 과업도전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H5.1과 가설 H5.2는 채택되고 H5.3은 기각되었다. 사회적지지는 자신감의 총 분산을 10.6% 설명하고 있다($F=11.334, R^2=.106$).

<표5> 창업자기효능감에 대한 사회적지지의 영향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업도전감	
	B	t	B	t	B	t
(상수)	1.652	6.768***	2.264	11.858***	1.600	5.782***
D.sex.M	.356	3.426**	.241	2.955**	.389	3.300**
정서적지지	.170	2.706**	.246	5.009***	.197	2.759*
물질적지지	.183	3.696***	.033	.850	.168	2.990*
평가적지지	.032	.554	.086	1.880	.032	.482
R ²	.126		.148		.106	
F	13.750***		16.648***		11.334***	

* $p<.05$, ** $p<.01$, *** $p<.001$

4.2.3 창업자기효능감이 창업기회역량에 미치는 영향

창업자기효능감이 사회적지지와 독립적으로 창업기회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하기 위해 사회적지지와 창업자기효능감을 독립변수로 창업기회역량(기회인식, 기회평가)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매개변수인 창업기회역량과는 독립적으로 평가적지지만이 기회인식에 유의한 영향($B=.131, p=.007$)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가적지지가 기회인식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적이고 효과크기가 .131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기회평가에 대한 직접효과는 정서적지지($B=.131, p=.016$), 평가적지지($B=.149, p=.002$)만이 유의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창업자기효능감 중 자기조절효능감($B=.291, p=.000$)과 과업도전감($B=.219, p=.000$)만이 창업기회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H6-2와 H6-3은 채택되고 가설 H6-1은 기각되었다. 기회평가에 대해서는 창업자기효능감 중 자신감($B=.136, p=.003$), 자기조절효능감($B=.144, p=.000$) 및 과업도전감($B=.220, p=.000$)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H7-1, H7-2과 H7-3는 모두 채택되었다.

<표 6> 창업자기효능감이 창업기회역량에 미치는 영향

	기회인식		기회평가	
	B	t	B	t
(상수)	.496	2.073*	.222	.932
D.sex.M	.252	2.848**	.171	1.949
정서적지지	.081	1.501	.131	2.430*
물질적지지	.039	.937	.050	1.191
평가적지지	.131	2.700**	.149	3.071**
자신감	.039	.852	.136	3.016**
자기조절효능감	.291	4.877***	.144	2.429*
과업도전감	.219	5.284***	.220	5.347***
R ²	.335		.341	
F	27.330***		28.007***	

* $p<.05$, ** $p<.01$, *** $p<.001$

4.2.4 간접효과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정을 위하여 10,000회 반복의 Bootstrap 표본들에 관한 편의수정 95% Bootstrap 신뢰구간을 사용하였다. 이 분석에서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간접효과가 유의적이라고 결론 내린다. 또한 Bootstrap 신뢰구간을 이용하여 특정 간접효과들의 대응별 비교를 통해 특정 간접효과 간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는지를 검정하였다.

4.2.4.1 정서적지지의 간접효과

<표 7>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정서적지지가 창업자기효능감을 경유하여 기회인식에 미치는 총간접효과의 크기는 .125이고 95% Bootstrap 신뢰구간 [.067, .195]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양의 총간접효과가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정서적지지가 창업자기효능감을 경유하는 특정간접효과 중 정서적지지→자기조절효능감→기회인식, 정서적지지→과업도전감→기회인식의 효과크기가 각각 .073, .043, 95% Bootstrap 신뢰구간은 각각 [.034, .127], [.011, .088]로 나타났다. 이 구간들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양의 특정간접효과가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단위 더 큰 정서적지지 수준이 더 자기조절효능감과 과업도전감을 가져와 정서적지지 수준이 한 단위 작은 경우보다 각각 .073 단위만큼, .043 단위만큼 기회인식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간접효과들의 대응별

차이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간접효과들의 차이 값의 유의성 검정을 95% Bootstrap 신뢰구간 검정으로 실시하였다. 자신감을 경유하는 간접효과가 자기조절효능감을 경유하는 간접효과보다 .064만큼 유의하게 더 작게 나타났다.

정서적지지가 창업자기효능감을 경유하여 기회평가에 미치는 양의 총간접효과의 크기는 .104이고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의한 양의 총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정서적지지가 창업자기효능감을 경유하는 특정간접효과 중 정서적지지→자신감→기회평가의 효과크기(0.024), 정서적지지→자기조절효능감→기회평가의 효과크기(0.037), 정서적지지→과업도전감→기회평가의 효과크기(.043) 모두 95% Bootstrap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양의 특정 간접효과가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단위 더 큰 정서적지지 수준이 더 큰 자신감과 자기조절효능감 및 과업도전감을 가져와 정서적지지 수준이 한 단위 작은 경우보다 각각 .024단위만큼, .037만큼, .43만큼 기회평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간접효과들의 대응별 차이가 <표 7>에 제시되어 있는데 비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H8은 부분 채택되었다. 또한 매개변수가 통제된 직접효과인 정서적지지/매개변수→기회평가($B=.131, p<.05$)만이 유의적으로 나타나 정서적지지→자기조절효능감→기회인식, 정서적지지→과업도전감→기회인식은 완전매개, 기회평가에 대한 매개효과는 부분매개로 나타났다.

<표 7> 기회인식과 기회평가에 대한 정서적지지의 간접효과

	기회인식		
	효과	95% BI LL	95% BI UL
총간접효과	.125	.067	.195
자신감	.009	-.005	.035
자기조절효능감	.073	.034	.127
과업도전감	.043	.011	.088
C1	-.064	-.122	-.023
C2	-.035	-.085	.002
C3	.030	-.027	.090
	기회평가		
	효과	95% BI LL	95% BI UL
총간접효과	.104	.048	.169
자신감	.024	.005	.062
자기조절효능감	.037	.008	.080
과업도전감	.043	.011	.087
C1	-.013	-.058	.034
C2	-.019	-.063	.019
C3	-.005	-.062	.047

주) C1=자신감-자기조절효능감; C2=자신감-과업도전감; C3=자기조절효능감-과업도전감

4.2.4.2 물질적지지의 간접효과

<표 8>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물질적지지가 창업자기효능감을 경유하여 기회인식에 미치는 총 간접효과의 크기는 .052이고 95% Bootstrap 신뢰구간 [.007, .102]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양의 총간접효과는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물질적지지가 창업자기효능감을 경유하는 특정간접효과 중 물질적지지→과업도전감→기회인식의 효과크기가 .035이고, 95% Bootstrap 신뢰구간들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양의 특정간접효과가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단위 더 큰

물질적지지 수준이 더 큰 과업도전감을 가져와 물질적지지 수준이 한 단위 작은 경우보다 .035만큼 기회인식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간접효과들의 대응별 차이가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간접효과 차이들의 Bootstrap 신뢰구간이 모두 0을 포함하므로 대응별 차이는 모두 비유의적으로 나타났다. 물질적지지가 창업자기효능감을 경유하여 기회평가에 미치는 양의 총 간접효과는 .060의 크기이고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의한 양의 총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물질적지지가 창업자기효능감을 경유하는 특정간접효과 중 물질적지지→자신감→기회평가, 물질적지지→과업도전감→기회평가의 효과크기가 각각 .025와 .035이고, 95% Bootstrap 신뢰구간들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양의 특정간접효과가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단위 더 큰 물질적지지 수준이 더 큰 자신감과 과업도전감을 가져와 물질적지지 수준이 한 단위 작은 경우보다 각각 .025 단위만큼, .035만큼 기회평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간접효과들의 대응별 차이가 <표 8>에 제시되어 있는데 간접효과 차이들의 Bootstrap 신뢰구간이 모두 0을 포함하므로 대응별 차이는 모두 비유의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H9는 부분 채택되었다. 매개개변수가 통제된 직접효과인 물리적지지/매개변수→기회인식, 기회평가가 비유의적으로 나타나 물리적지지→과업도전감→기회인식, 물리적지지→자신감→기회평가 및 물리적지지→과업도전감→기회평가는 완전매개로 나타났다.

<표 8> 기회인식과 기회평가에 대한 물질적지지의 간접효과

	기회인식		
	효과	95% BI LL	95% BI UL
총간접효과	.052	.007	.102
자신감	.009	-.006	.031
자기조절효능감	.007	-.015	.032
과업도전감	.035	.010	.072
C1	.002	-.029	.028
C2	-.026	-.069	.005
C3	-.028	-.061	.002
	기회평가		
	효과	95% BI LL	95% BI UL
총간접효과	.064	.021	.111
자신감	.025	.008	.055
자기조절효능감	.004	-.007	.121
과업도전감	.035	.009	.072
C1	.021	-.001	.049
C2	-.010	-.049	.025
C3	-.031	-.068	-.006

주) C1=자신감-자기조절효능감; C2=자신감-과업도전감; C3=자기조절효능감-과업도전감

4.2.4.3 평가적지지의 간접효과

<표 9>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평가적지지 창업자기효능감을 경유하여 기회인식에 미치는 총간접효과의 크기는 .195이고 95% Bootstrap 신뢰구간 [-.015, .092]이 0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양의 총 간접효과는 비유의적으로 나타났다.

평가적지지가 창업자기효능감을 경유하는 특정간접효과 중 평가적지지→자기조절효능감→기회인식의 효과크기가 .027이

고, 95% Bootstrap 신뢰구간들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양의 특정간접효과가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단위 더 큰 평가적지지 수준이 더 큰 자기조절효능감을 가져와 평가적지지 수준이 한 단위 작은 경우보다 .027만큼 기회인식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간접효과들의 대응별 차이가 <표 9>에 제시되어 있는데 간접효과 차이들의 Bootstrap 신뢰구간이 모두 0을 포함하므로 비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적지지가 창업자기효능감을 경유하여 기회평가에 미치는 양의 총간접효과는 .028의 크기로 나타났다지만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비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적지지가 창업자기효능감을 경유하는 특정간접효과 중 평가적지지→자기조절효능감→기회평가의 효과크기가 .014이고, 물리적자원→자원재구성 특정간접효과들의 대응별 차이가 <표 9>에 제시되어 있는데 간접효과 차이들의 Bootstrap 신뢰구간이 모두 0을 포함하므로 대응별 차이는 모두 비유의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H10은 부분 채택되었다.

매개개변수가 통제된 직접효과인 평가적지지/매개변수→기회인식($B=.131, p<.01$)과 평가적지지/매개변수→기회평가($B=.149, p<.01$)이 유의적으로 나타나 평가적지지→자기조절효능감→기회인식, 평가적지지→자기조절감→기회평가는 부분매개로 나타났다. 총 간접효과는 매개변수들을 경유하여 독립변수의 차이가 종속변수의 차이에 미치는 효과를 계량화 한 것이다. 총 간접효과가 유의하다는 것은 매개변수들이 나타내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매개변수들의 매커니즘을 통하여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총 간접효과는 특정간접효과의 합계이다.

평가적지지의 경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간접효과가 유의적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총 간접효과가 비유의적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매개변수들의 모델에 투입되어 총 간접효과의 추정치의 표본분산을 증가시켜 추론 검정 결과 총 간접효과가 비유의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표 9> 기회인식과 기회평가에 대한 평가적지지의 간접효과

	기회인식		
	효과	95% BI LL	95% BI UL
총간접효과	.038	-.015	.092
자신감	.002	-.004	.020
자기조절효능감	.027	.002	.066
과업도전감	.009	-.025	.044
C1	-.025	-.063	.001
C2	-.007	-.042	.025
C3	.030	-.020	.060
	기회평가		
	효과	95% BI LL	95% BI UL
총간접효과	.028	-.024	.079
자신감	.005	-.011	.030
자기조절효능감	.014	.000	.041
과업도전감	.009	-.025	.043
C1	-.008	-.035	.019
C2	-.003	-.037	.028
C3	.005	-.032	.039

주) C1=자신감-자기조절효능감; C2=자신감-과업도전감; C3=자기조절효능감-과업도전감

4.3 논의

가설검정의 결과를 보면 첫째, 사회적지지의 하위변인인 정서적지지, 물질적지지 및 평가적지지 모두가 창업기회역량의 기회인식과 기회평가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기회형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창업기회역량을 높여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할 때 사회적지지와 창업기회역량 간의 영향을 연구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유사한 연구에서 김재호(2013)는 청년예비창업자에게 사회적지지는 창업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과 임교순(2016)은 사회적지지는 창업 프로세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초기 창업자의 행동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맥락이 같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사회적지지가 창업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사회적지지의 하위변인인 정서적지지, 물질적지지 및 평가적지지 중에서 정서적, 물질적 지지만 자신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정서적지지와 평가적지지만 자기조절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정서적지지와 물질적지지만이 과업도전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 고찰하면, 이경재(2015)는 베이비부머에 대한 사회적지지가 자기효능감의 자기조절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지지의 하위변인인 정보정서적 지지와 물질평가적지지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다고 했고, 또한 사회적 지지가 자기효능감의 자신감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회적지지의 하위변인인 정보정서적 지지는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낸 반면, 물질평가적 지지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지지가 자기효능감의 과업도전감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 연구결과와는 일부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창업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 중 자신감을 제외한 자기조절효능감과 과업도전감 만이 창업기회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및 과업도전감 모두가 창업기회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 고찰하면, Ardichvili et al.(2003)은 자기효능감은 기회인식과 기회평가를 포함하는 기회개발 과정과 정(+)의 관계가 있다고 하였고, 최민정(2016)이 창업자기효능감은 기회인식과 기회평가에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입증한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사회적지지가 창업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창업기회역량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부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동일한 패턴의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정진박(2013)이 창업자기효능감이 사회적지지와 창업의도 사이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입증한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V. 연구결론, 한계 및 정책적 제언

우리나라는 전체 창업 중 생계형 창업 비중이 63%로 인도(66%)에 이어 2위를 차지하지만 반대로 기회형 창업 비중은 21%에 불과해 전체 OECD 가입국 중 최하위인 34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OECD 보고서를 보면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은퇴자들의 치밀한 준비 없이 뛰어드는 생계형 창업의 폐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이는 창업기회역량을 살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방식으로 창업하기보다는 먹고살기에 급급해 치킨집이나 프랜차이즈 등 자영업을 영위하는 이들이 압도적이라는 애기인데 결국은 서로간의 과다출혈경쟁으로 모두가 어렵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

정부도 이런 무분별한 생계형 창업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16년부터 기회형 창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생계형 창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창업교육을 기회형 창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5060 세대-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에서 신중년이 현업 은퇴 후 실패확률이 높은 과밀 생계형 창업을 지양하도록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여 신중년의 주된 일자리 기술 및 경험을 살려 기회형 창업을 하도록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은퇴창업자의 주류를 이루는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이들에 대한 사회적지지가 창업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실제로 창업을 추진하기 전에 기회형 창업을 위한 창업기회역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 했다. 이를 위하여 주로 서울시와 경기도 일원에 거주하는 베이비붐 세대들로부터 수집한 설문지 387부를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사회적지지가 창업기회역량의 기회인식과 기회평가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지지가 창업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정서적, 물질적 지지만 자신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정서적지지와 평가적지지만 자기조절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정서적지지와 물질적지지만이 과업도전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창업자기효능감 중 자기조절효능감과 과업도전감 만이 창업기회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및 과업도전감 모두가 기회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적지지가 창업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창업기회역량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부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자신감은 기회인식에 대한 매개효과가 없고 정서적지지와 기회평가, 물질적지지와 기회평가 간을 매개하고 자기조절효능감은 정서적지지와 평가적지지를 기회인식과 기회평가에 매개한다. 과업도전감은 정서적지지와

물질적지지를 기회인식과 기회평가에 매개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사회적지지는 창업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통하여 창업기회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은퇴 후 베이비붐 세대의 기회형 창업을 고취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점은 첫째, 주로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연구자의 동문, 지인, 거래처 간부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베이비붐 세대로 확대 일반화시키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지역별, 학력별 안배를 하여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한 창업관련 연구도 부족할 뿐 아니라 사회적지지와 창업기회역량과의 기존 선행연구가 거의 없어 더 많은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런 창업기회역량의 연구를 바탕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후 실질적으로 기회형창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방법에 대한 후속 연구가 있기를 바란다.

REFERENCE

강재학(2016). 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기업가정신이 창업효능감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업기회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벤처경영학과, 박사학위논문

강재학·하규수(2015).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창업기회인식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0(4), 1-12.

고용노동부(2017.8.8.). 정부 최초의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계획 마련,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김시월·조향숙(2013). 베이비붐 세대의 재정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Financial Planning Review*, 6(3), 1-33.

김용하(2011). 베이비붐 세대 대책이 필요하다, *보건복지포럼*, 174.

김재호(2013). 사회적 창업가정신과 사회적지지가 창업 행동에 미치는 영향: 창업가적 프로세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창업학과 창업경영전공, 박사학위논문

박성호(2017). 창업환경과 창업자기효능감 및 경제적실패부담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창업지원제도의 조절변수와 기업가정신의 매개변수를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벤처경영학과, 박사학위논문

박성희(2016). 소상공인의 성격특성이 사업성공에 미치는 영향: 사업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자본 확보의 매개효과와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송실대학교 대학원 벤처중소기업학과, 박사학위논문

방하남(2012). 베이비 붐 세대, 무엇이 특별한가?, *노동리뷰*, 91, 1-3.

백광엽(2017.4.7.). 한국, 내달 ‘고령사회’ 진입: 달력 닦친 ‘실버 쇼크’, *한국경제*

심성미(2014.8.25.). 시드는 기업가정신 창업, *한국경제*,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4082410561>

안승권(2016). 창업교육과 제도적지원이 자기효능감 및 의지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창업학과 창업컨설팅전공, 박사학위논문

양성운(2017). 사회적지지가 서비스직원의 긍정심리자본, 창의성,

직무성공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서비스경영전공, 박사학위논문

안태욱(2017). 대학 창업교육의 창의성 역량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창업가정신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창업학과 창업경영전공, 박사학위논문

오승국(2015). 중장년 남성 실직자의 진로장벽, 사회적지지, 자아탄력성, 구직효능감,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송실대학교 대학원 평생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이경재(2015). 베이비부머에 관한 사회적지지가 자기효능감과 퇴직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노인의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이지영(2011). 베이비부머 가계연금소득의 노후소득보장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소비자보호학과, 박사학위논문

임교순(2016). 사회적지지와 제도적지원이 초기창업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정보경영전공, 박사학위논문

전영달·허철무(2015). 컨설턴트의 직무만족과 사회적 지지가 컨설팅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0(5), 175-184

정신박(2013). 중국청년창업가의 창업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사회적지지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송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 석사학위논문

진주영(2016). 베이비붐세대의 환경적 특성이 은퇴 후 경제활동 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연구: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벤처경영학과 복지전공, 박사학위논문

채연희(2016). 대학생의 고용가능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셀프리더십과 자기효능감의 다중매개효과와 전공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송실대학교 대학원 벤처중소기업학과, 박사학위논문

최민정(2016). 소상공인 창업교육이 기회인식 및 평가에 미치는 영향: 창업효능감과 조절초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창업학과 창업컨설팅전공, 박사학위논문

최은영(2015). 1,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준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소비자학과, 박사학위논문

통계청(2016). ‘2015 고령자 통계’ 자료

Ahn, T. U.(2017). *The Influence of University Entrepreneurship Education's Creativity Capacity to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An, S. K.(2016). *Effect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Institutional Support 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Ardichvili, A., Cardozo, R., & Ray, S.(2003). A Theory of Entrepreneurial Opportunity Identification and Development.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8(1), 105-123.

Bandura, 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Bang, H. N.(2012). Baby boomer, What is Special?, *Labor Review*, 91, 1-3.

Betz, N. E.(1989). Implications of the Null Environment Hypothesis for Women's Career Development and for Counseling Psychology. *Counseling Psychologist*, 17(1), 136-144.

Bird, B.(1988). Implementing Entrepreneurial Ideas: The Case for Inten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3), 442-453.

Chae. Y. H.(2016). *The Effect of Employability of the University Student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Soongsil

- University.
- Choi, E. Y.(2015). *A Study on the Preparations for Retirement of the First and Second Baby-Boom Generations*,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 Choi, M. J.(2016).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Opportunity Recognition and Evaluation*,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 Chun, Y. D., & Heo, C. M.(2015), A Study on The Effects of Consulting on Consultant's Satisfactions and Social Support,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0(5), 175-184.
- Cobb, S.(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4(5), 300-314.
- Cohen, S., & Hoberman, H.(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nd Buffer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2), 99-125.
- Ding Xinbo(2013). *The Impact of Social Support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via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in Chinese Young Entrepreneurs*, Master Thesis, Graduate School of Soongsil University.
- Dong, X., & Simon, M. A.(2010). Gender Variations in the Levels of Social Support and Risk of Elder Mistreatment in a Chinese Community Population.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29(6), 720-739.
- House, J. S.(1981). *Social Stress and Social Support*, Reading Ma, Addison-Wesley
- IM, G. S.(2016).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Institutional Support on Nascent Entrepreneur's Behavior*,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 Jin, J. Y.(2016). *A Study on the Effect of Environmental Traits of Baby Boomer Generation on Economic Activity Orientation after Retirement*,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 Kang, J. H.(2015). *A Study on effect of the University Student's Self-Leadership and Entrepreneurship 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 Kang J. H., & Ha. K. S.(2015). A Study of Effect of Self-leadership by College Student on Recognition of Opportunity on Establishment of Company and Will of Establishing Company,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0(4). 1-12.
- Kaplan, H. B., Cassel, J. C., & Gore, S.(1977). Social Support and Health, *Medical Care*, 5(5), 47-58.
- Kim, J. H.(2013). *The Effects of Social Entrepreneurship and the Social Support on Entrepreneurial Behavior*,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 Kim, Y. H.(2011). Preparation is required for Baby boomer, *Health & Welfare Policy Forum*, 174, 2-3.
- Kim, S. W., & Cho, H. S.(2013). The Impact of Financial Condition on Life Satisfaction for Korean Baby Boomers, *Financial Planning Review*, 6(3), 1-33.
- Kirzner, I. M.(1973). *Competition and Entrepreneurship*.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rueger, N., & Dickson, P. R.(1994). How Believing in Ourselves Increases Risk Taking: Perceived Self-efficacy and Opportunity Recognition. *Decision Sciences*, 25(3), 385-400.
- Lee, J. Y.(2011). *Pension Benefits on Retirement Income Security of Korean Baby Boomer Households*,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 Lee, K. J.(2015). *Effect of Social Support to Baby Boomer on Self-efficacy and Retirement Attitude*,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Daegu Haany University.
- Man, T. W., Lau, T., & Chan, K. F.(2002). The Competitivenes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 Conceptualization with Focus on Entrepreneurial Competenci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7(2), 123-142.
- M.O.E.L.(2017.8.8.). Build Infrastructure Plan for 3rd Life of "50+ Generation", *M.O.E.L. Press Release*
- Morris, M. H., Webb, J. W., Fu, J., & Singhal, S.(2013). A Competency-based Perspective 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Conceptual and Empirical Insight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51(3), 352-369.
- Oh, S. K.(2015).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the Variables of Middle Aged Unemployed Male's Career Barriers, Social Support, Ego-Resilience, Job Search 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Soongsil University.
- Ozgen, E., & Baron, R. A.(2007). Social Sources of Information in Opportunity Recognition: Effects of Mentors, Industry Networks and Professional Forum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2(2), 174-192.
- Park, S. H.(2016). *The Effects of a Small Business Owner's Personality Traits on Performance*,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Soongsil University.
- Park, S. H.(2017). *A Study on the Effects of SME Start-up Environment,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Fear of Business Failure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 Schulz, U., & Schwarzer, R.(2004). Long-term Effects of Spousal Support on Coping with Cancer after Surger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5), 716-732.
- Schunk, D. H.(1991). Self-efficacy and Academic Motivation. *Educational Psychologist*, 26(3-4), 207-231.
- Sim, S. M.(2014.8.25.). Fading Entrepreneurship Start-up,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4082410561>
- Yang, S. Y.(2017).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Service staff's Job Performanc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s, Creativity*, Doctorial Dissertation, Service Business School, Kyounggi University.
- Wei, X., & Chongming, W.(2009). Research on the Contents and Structure of Social Support for Private Entrepreneurs, *Asian Social Science*, 5(2), 11-14.

A Study on Effect of Social support on Baby boomer's Entrepreneurial Opportunity Competence: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Kim, Sang Soo*
Lim, Wang Kyu**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entrepreneurial opportunity competence for Baby boomer (born in 1955-1963),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The governmental start-up policy and entrepreneurship education are mostly conducted for the college students and young generation mainly through such programs as the youth start-up school. In addition, studies on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institutional support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young generation entrepreneurs are being actively pursued. Meanwhile, the study for baby boomers is on the welfare side mainly. Although they are starting to make their living-based business without prior careful preparation for their livelihood after retirement, while there is little study on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for this baby boomer on entrepreneurial opportunity competence needed for opportunistic entrepreneurship.

Therefore, in this study, in order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Baby boomer's entrepreneurial opportunity competence,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387 questionnaires collected by the baby boomers living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s were conducted. As a result of analysis,

First, Social support has a significant effect on both Opportunity recognition and Opportunity assessment of entrepreneurial opportunity competence. Second, In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self-efficacy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in Emotional and Instrument support only on Self-confidence, In Emotional support and Feedback support only on Self-regulated efficacy & Emotional support and Instrument support only on Goal challenge were found to be a significant effect. Third, Self-regulated efficacy and Goal challenge in the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on Entrepreneurial opportunity recognition were found to be a significant effect. All Self-confidence, Self-regulated efficacy & Goal challenge in the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on Entrepreneurial opportunity assessment were found to be a significant effect. Fourth, Indirect effect of social support on entrepreneurial opportunity competence mediated by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was found to be partially significant.

Keywords: Baby boomer, Social support, Entrepreneurial opportunity competence,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 First Author,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